

기금 바닥난 장흥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시끌'

주민들 정부 지원금과 별도 20만원 수준 지원금 희망 김성 군수 "다음달 2회 추경 반영 25만원씩 지급 계획"

이제명 정부의 '민생지원금'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장흥지역 주민들이 이와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20만원 수준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장흥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필요할 때 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흥군은 이미 기금이 고갈돼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장흥군은 민선 7기인 지난 2019년 12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 그해 불용액, 낙찰차액, 전년도 잉여금, 예비비 등 포함 총 225억원에 이르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인 2020

년 1회, 3회 추경예산을 통해 옛 KBS 중계소 부지 매입비에 63억원, 노력형 물양장 부지 매입에 43억원, 소방교육원 부지 매입에 30억원 등 기금 225억원 전액을 써버리고 현재 이자본 7200만원만 잔여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행정안전부 권고로 지난 2023년 12월에 일선 지자체 모든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로, 기존기금이 폐지된 이후 지방교부세가 2023년에 551억원이 감액된데다 매년 100억원씩 군청사 건립기금 부담과 세수재원 부족까지 겹쳐 올 때까지 한 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 보성군이 장흥군과는 달리 1000억원 이상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1인당 6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민생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열린 장흥군의회 임시회 답변에서 "민선 7기의 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부적절로 기금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2024년도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236억원)에서 다음 달 있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 1인당 25만원 수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들이 탄력적으로 임의로 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행안부가 별도의 용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고서면 명옥헌 원림 배롱나무꽃은 여름이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다. '백일동안 꽃을 피운다'고 해서 백일홍으로 불린다. <담양군 제공>

담양 '명옥헌 원림' 배롱나무꽃 절정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별서정원 선비정신 간직 전국 여행객 주목

담양 고서면 '명옥헌 원림'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자산 중 하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명옥헌 원림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자연관과 사유의 공간이 고스란히 담긴 전통 별서정원이다.

조선 중기 문신 오희도 선생의 아들 오이정 선생이 부친을 기리기 위해 조성했다. 명옥헌은 정자 뒤로 흐르는 샘물 소리가 옥구슬이 부딪치는 듯 맑고 고요한 데서 유래했으며, 당대 대학자 우암 송시열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전해진다. 정자와 정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은 단

순한 풍경을 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색과 학문에 몰두했던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는 철학적 공간이다.

명옥헌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방이 트인 구조로 돼 있어 마루에 앉으면 고요한 숲과 연못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공을 최소화한 정원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자연 중심의 정원미를 보여준다.

담양군 관계자는 "명옥헌 원림은 조선 선비들의 삶과 정신을 간직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심과 사색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다"며 "배롱나무꽃이 만개하는 여름철에는 담양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화순군, 상습 침수 도곡면 덕곡지구 배수개선사업 박차

112억 들여 배수장·배수로 신설

화순군은 도곡면 덕곡리 일원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덕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도곡면 덕곡리 일대는 배수시설이 부족해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가 자주 침수되는 상습 피해 지역으로 화순군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침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지역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지정해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돌

입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12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진행된다. 주요 사업은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로 확장 1개소, 배수로 정비 3km 등으로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원활한 배수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배수개선사업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점검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역 내 농업용 저수지 117개소와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실행하고 있으며, 장마철과 태풍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조영일 화순군 건설교통실장은 "덕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침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쌀귀리·쌀보리 대형 유통망·쇼핑몰 진입 청신호

이마트·쿠팡 등 생산현장 찾아 맥류 품위·수량 작황 확인 호평

강진군의 특산물인 쌀귀리와 쌀보리에 대한 국내 대형 할인점과 쇼핑몰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쌀귀리와 쌀보리 수확기에 접어들며 국내 대형 온오프라인 할인점과 쇼핑몰 담당자들이 수확 현장을 방문해 맥류 품위와 수량 등 작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8년 동안 강진군 식량작물 농업인들과 상호 신뢰 속에 계약재배를 진행 중인 두부식 품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마트는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로, 강진산 쌀귀리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다.

농산물 인점 절차가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으며, 노브랜드는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국내 최대의 오픈 마켓으로, 최근 대규모 농산물 매입과 할인판매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프리미엄 농산물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업체의 방문은 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의 강진군 쌀귀리·쌀보리의 역사, 재배현황 및 특장점 등을 판매자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브리핑을 시작한 데 이어, 함께 배석한 재배농가 대표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내 대형 온오프라인 할인점과 쇼핑몰 담당자들이 지난 11일 강진 쌀귀리 현장을 방문해 맥류 품위와 수량 등 작황을 확인했다. <강진군 제공>

이러 강진을 학명리 쌀귀리 단지와 마량면 원포리 일대의 쌀보리 단지 일대에서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파종-월동기 기상이면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강진 쌀귀리와 쌀보리 원료곡을 확인하며 호평을 내놓았다.

실제로 강진군은 맥류 재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지닌 지역으로,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 특히 내한성이 약한 쌀귀리의 재배 여건이 다른 지역과 비교

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농가들의 재배 기술력과 종자 관리 능력이 매우 높아 양질의 원료곡이 생산돼 그 품질 역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산물은 고품질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강진군 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급을 확대해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장흥군, 민간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장흥군이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심화와 기존 자녀 돌봄 부담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들을 위해 마련했다.

전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에 경

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회복 관련 병원비, 약품비 등이 출산가정에 지원된다.

지난해 출산한 산모 중 절반 이상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실패, 자녀 양육 부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이용이 어려워 산후조리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후조리 사각지대

가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장흥군에 주소를 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시민 주도 '나주곶간' 수강생 모집

20명 내외 8회 문화기획 등 교육

나주시가 시민 주도의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나주곶간' 로컬 기획학교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나주곶간'은 시민이 주체가 돼 지역 문화자원을 탐색하고 실험과 기획을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직접 발굴하는 입문형 프로그램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획

했다.

교육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문화기획 이론 및 우수 사례 강연(3회), 팀별 프로젝트 기획과 현장 실습(4회), 성과 공유회(1회)로 구성한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지역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7일까지 나주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에

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전문 멘토단의 기획 자문을 비롯해 소정의 활동비, 수료증 발급(80% 이상 출석 시), 차년도 재단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멘토단은 청년기획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기획 실력을 돕는다.

김찬동 나주시문화재단 대표는 "지역문화는 지역의 생명감을 일으키고 시민 공동체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함께 만들고 배우는 '나주곶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벼 재배 신기술 무논점과 단지 조성

생산비·노동력 절감 효과

함평군이 농번기 인력 부족과 고비용 구조로 이 중고를 겪는 벼농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읍다면과 학교면 일대에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단지와 가루쌀 직파재배 생산단지 등 총 132.5ha 규모의 원줄기 무논점과 재배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쌀 산업은 가격 대비 생산 비용이 높아 국제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한계점에 도달했고, 농번기 인력난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함평군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직파재배, 드론모심기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벼농사 생산비 절감과 농번기 농업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무논점과 기술은 별도의 육묘·이앙 작업 없이 논에 직접 씨앗을 파종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현실에 적합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 원줄기 무논점과 재배 기술은 기존 직파재배의 단점을 보완해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높은 기술이다"라며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신기술을 확대·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김한중(왼쪽) 장성군수와 김주영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이 지난 17일 장성군 청사에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고속도로 유희지에 '기후대응 도시숲'

도로공사와 업무협약

장성군이 고속도로 유희지에 환경과 경관 개선을 위한 숲 조성에 나선다.

장성군은 최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12억원을 들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남장성 분기점 램프구간(도로 본선이 만나는 경사면) 유희지에 이팝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기후 대응 도시숲은 차량 매연과 분진을 차단·

흡착해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탄소 저장과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삭막한 고속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생명이 숨쉬는 녹색의 경관을 선보여 풍부한 산림과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장성군의 도시 이미지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장성군의 '천년숲' 구현과 한국도로공사의 'ESG경영'을 실현하는 상생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여줄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